

BNK금융, 지역 동반성장 올인 특화산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18.4조 지원
특별대출·금리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부담완화·유동성 공급
지역 별 특화산업 육성 지원도

BNK금융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투자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지역 내 인구·산업 유출로 지역 금융의 경쟁력도 약화하는 만큼, BNK금융의 '지방소멸' 위기 돌파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3월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달 30일 '지역 동반 성장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BNK금융이 실시한 금융지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 소상공인에 18.4조 금융지원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전용 특별대출 공급 ▲기존 대출 금리 감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BNK금융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이어 지역 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맞춘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지역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한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지역 내 금융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월 진행한 비전 발표식을 통해 '지역 기반의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 완성'을 그룹의 중장기 추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단기 전략으로는 지주사 역량 강화와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지역 내 금융기관 지위 공고화, 비대면 채널 고도화, 비은행 계열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울경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둔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반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창립 기념식에서 "BNK금융그룹의 근간은 부울경 지역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지방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션과 비전 아래 BNK금융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BNK금융, 지역과 동반성장"

BNK금융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힘쓴다.

지난 5월 회장직속기구인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지역상생ESG추진위원회'로 재편성해 부울경 지역만의 독자적인 ESG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7월에는 그룹 내에 지역특화산업 금융전문가 양성 과정인 'BNK IB금융과정'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그룹사 공동 부동산사업장 정상화 지원, 가덕신공항인프라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 보증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BNK금융이 앞서 제시한 지역별 특화 산업은 부산의 금융·블록체인, 울산의 에너지, 경남의 항공·우주 등이다.

빈 회장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BNK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주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 없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과의) 동반성장은 보다 본질적인 기업가치 밸류업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성동구 18평대 아파트 10억에도 특공 청약 경쟁률 112대 1 기록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 특공
65세대 모집에 7301명 접수

서울 성동구에서 18평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에 달했지만 특별공급 청약에 7000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2대 1로 집계됐다. 65세대 모집에 7301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11세대를 모집한 생애최초에 4879명이 신청했고, 신혼부부가 24세대 모집에 2002명이 접수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성동구 행당7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958세대 규모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8세대다.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3.3㎡당 평균 5232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정해졌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45㎡가 9억3600만원이며, 59㎡와 65㎡가 각각 14억5400만원, 16억4680만원이다. 여기에 공정률 60% 이상인 후분양이라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나와 있지만 시스템에어컨에 김치냉장고와 의류관리 등 사실상 풀옵션항목이 포

함되어 있어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된다. 실질적인 분양가는 45㎡ 9억3097만원, 59㎡ 14억9192만원, 65㎡ 16억8643만원이다. 특별공급은 45㎡와 65㎡만 배정됐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서울숲리버뷰자이'가 지난달 59㎡가 15억원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분양가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인근에 신축 공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행당동에서 신축으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숲리버뷰자이가 지난 2018년 입주한 이후 처음이며, 향후에도 몇 년간 입주물량이 없다. 성동구 전체로 놓고 봐도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과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2차'가 내년 입주한 이후 2026년에는 공급이 아예 없으며, 2027년에도 용당동에 1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진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비규제 지역으로 거주유무나 해당주택 등은 없으며, 전매제한만 1년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충남 아산시 '탕정삼성트라펠리스' 전경.

/전지원 기자

현대카드, 우량고객 겨냥 프리미엄 승부수

3바다-A 현대카드, 연회비 30만원
대한항공·제네시스·SSG.COM
업계 최초 카드 한장에 3개사 혜택

현대카드가 프리미엄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강력한 혜택을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건전성 관리와 우량고객 확보라는 두토끼 잡기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3바다-A 현대카드'를 내놨다.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대한항공과 제네시스, SSG.COM과 협업했다. 업계 최초로 카드 한장에 기업 3곳의 혜택을 모두 담았다. 연회비는 30만원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롯데백화점과 협업을 통해 PLCC를 공개했다. 미래의 주요 소비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를 확보하면서 프리미엄 고객층을 넓혀 가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상품은 실버와 골드 두 가지로 구성했다. 연회비는 각각 3만원과 15만원이다.

지난 5월 출시한 'MX 블랙 에디션 2'의 연회비는 20만원이다. 주요 소비업종 5곳에서 10% 청구할인과 함께 '비자 시그니처' 등급에 적용하는 혜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프리미엄 카드' 사용하는 소비자 이미지.

을 누릴 수 있다. 전 세계 호텔 900여곳에서 방 업그레이드 및 무료 조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전략은 건전성과 시장점유율(MS)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높은 연회비를 지출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비판잔액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연체 가능성도 낮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적합하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업계 최초로 'VVIP 블랙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회비는 250만원으로 국내 신용카드 중 가장 높다. '상위 0.05%를 위한 카드'라는 슬로건을 가진 만큼 발급조건 또한 까다롭다.

업계에서도 신용카드 시장이 연회비와 혜택이 비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헤지카드'로 불리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신용카드보다 높은 연회비에 걸맞는 혜택을 탑재한 신용카드가 주류로 떠오른다는 것.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보다 강력한 혜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연회비 수익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1조3312억원이다. 연간 8.59%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회비 수익은 ▲2020년 1조686억원 ▲2021년 1조1347억원 ▲2022년 1조2259억원 ▲2023년 1조3313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

'맹모삼천' 변함없다... 우수 학군지 인기

3040 유아녀가구 내집 선택기준
학교 등 교육여건이 32.4% 차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불고 있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아파트 선호)'에도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에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집과 자녀 모두 '제대로 된 하나'를 일구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3일 부동산R114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입주 5년차 이하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년 동안 14% 올랐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주 수요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상승폭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가구 중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2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인 '3040 유아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자료에 따르면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

3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직장거리(17.1%), 주거환경(12.7%)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광역시와 도 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각각 34.4%, 35.5%가 자녀 교육 여건을 주택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서울(31.5%), 인천·경기(29%)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자들이 자녀교육 여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성미소지움1단지'는 지난 7월 6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2007년 입주해 올해 17년차를 맞은 단지임에도 종전 최고가(5억8500만원)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옥동·신정동 학원가가 지근거리에 있다.

충남삼성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인접한 충남 아산시 '탕정삼성트라펠리스' 역시 올해 4월 일반분양으로 44가구를 모집했을 당시 1만7929명이 몰렸다. 2009년 입주한 단지임에도 경쟁률은 무려 407.4대 1을 기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